

불자의 삶에는 큰 원력 있어야



6월 15일 감로사에서 봉행된 총담 스님 12주기 추모제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

을 증장시키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생일불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뜨겁고 진지하게 살 것을 서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고도 모른 채, 모르고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은 향(香)은 아무리 감추어도 그 냄새까지 감춰지지 않는다. 지성 스님은 불자라면 그렇게 좋은 향 하나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원력이란 이름의 향이다.

“총담 스님의 원력은 실로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 큰 원력이 원력으로 그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실천을 함으로써 큰 원력은 향기를 뿜어 증생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아름답고 크고 숭고한 원력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생을 마감한 뒤에다 거북하고 알뜰한 향기로 남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원력으로 전승되고 순환되는 것이 증생계니까요.”

일체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원력, 개인이 품은 원력이 비록 성취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다시 누군가에게로 전승되고 순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이다.

유구개수(有求皆遂) 예(如) 공곡지전성(空谷之傳聲)
무원부중(無願不從) 약(若) 정담지인월(澄潭之印月)
구함에는 따름이 있으니 빈 계곡에 메아리 소리와 같고
원함에는 따르지 않음이 없으니 맑은 못에 달 비치듯 하네.

불가의 기본 의례인 삼보통칭의 앞부분 ‘유치’(부처님을 찬탄하며 불공 올리는 연유를 아뢰는 대목)에 나오는 구절이다. 지성 스님은 “원력을 품고 사는 사람은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맑은 못에 어리는 달처럼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며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불사르는 투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처음 가는 길에서 늘 겪는 것이지만, 갈 때 보다 갈 때 더 많은 것이 보인다. 호명산 감로사 앞으로 큰 길이 나고 있었다. 아마 총담 스님의 화중생연을 현창하는 불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지성 스님이었다.

“지금 군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감로사 불사 건축허가가 났다고. 다녀가시고 기본 일이

생기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 했어요.”

“네, 스님. 어제 12주기 재를 잘 올리시어 제보 보살님과 큰스님 가피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손수 일군 도량에서 불길 속 연꽃으로 피어나신 총담 스님의 원력이 지성 스님의 원력으로 이어져 향기를 뿜어내는 호명산. 6월의 산은 짙푸른 숨을 쉬고 있었다.

글·사진=임연태(시인, 본지는설위원)

지성 스님은 ...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득도했다. 성동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태고종총무원의 재무 총무 사회 사정부장 등 중앙종회의원(4선), 동방불교대 상임이사, 태고종유지재단 이사, 한국 불교원용원 원장 등 주요 소임을 역임했다. 2004년 일제안 총담대중사 소신공양 일반성지 성역불사발원 1000 일기도를 회향한 뒤로 성역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8. 푸레밋 스님과 불칸 스님

몽골불교는 공산당의 탄압으로 뿌리째 뽑혀 형식적인 서너 개의 사찰과 서너 명의 승려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들어 개방의 바람을 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몽골불교는 다시 부흥을 맞고 있다.

불과 10여 년의 기간 동안 몽골에는 전국에 100여 사찰이 세워졌다. 불교대학이 개설돼 있는 간단사에만 300여 명에 달하는 스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3000명에 달하는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몽골불교가 다시 새롭게 되살아난 데는 많은 몽골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주목되는 스님들은 바로 몽골의 대표적인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몽골전통불교미술대학 학장 푸레밋 스님과 몽골 간단사의 불칸 스님이다.

푸레밋 스님은 불화를 중심으로 그리면서도 여러 가지 불교서적을 출판해 인간문화재로서 지성과 기능을 겸비한 성자로 존경받고 있다. 푸레밋 스님은 세계적인 밀교(密敎) 미술가이자 불과 10여 년의 기간 동안 몽골에는 전국에 100여 사찰이 세워졌다. 불교대학이 개설돼 있는 간단사에만 300여 명에 달하는 스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3000명에 달하는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다.



몽골 간단사.

푸레밋 스님은 예술, 불칸 스님은 철학분야서 후배 양성

푸레밋 스님은 현재 몽골전통 문화예술의 부흥자이다. 몽골 불교예술은 탕화, 단청, 불상과 법패의식이 티벳 전통의식과 비슷하다. 몽골 불교예술은 티벳 불교의 연장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300여 년 전에 태어난 자나바 자르성자에서 몽골승려의 의복과 몽골불상을 특징 있게 만들어 독특한 불교문화를 형성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된 불상이 수십 종이고, 이를 계승한 간단사 운판 스님이 1948년부터 왕궁, 동상, 조각, 불상, 탕 등 다양한 예술품을 독창적으로 제작했다. 2007년에 입적한 운판 스님의 뒤를 이어 지금은 푸레밋 스님이 몽골 전통불교예술을 이끌어 가고 있다.

몽골에는 몽골 전통 불교 사상을 계승한 대학이 세 개 있는데 몽골불교대학, 몽골전통의과대학과 마지막으로 푸레밋 스님이 운영하는 몽골불교예술대학이

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라디오의 정기 강연 등 다양한 단체가 초청하는 강연과 신문 잡지를 통해 몽골인들이 전통문화를 지켜서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푸레밋 스님은 몽골 불교미술대학 학장, 몽골전통문화예술원장, 아스팩 의장, 유에르덴 학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푸레밋 스님은 항상 “전통문화를 통한 몽골불교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부흥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푸레밋 스님은 “몽골인의 생활풍습은 대부분 불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전통문화사업을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고미술품, 회귀경전 등을 모아 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철학의 지혜와 방법》<인도·티베트·몽골의 철학과 역사>를 써서 많은 학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몽골 승려로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학자로서 6개국 이상의 언어에 능통해 아세아불교연구소장을 지냈다. 2000년 이후 국립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불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강연을 많이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는 항상 ‘불교는 철학이요, 과학이며 문화이다. 불교 속에는 인간의 온갖 지혜와 사랑이 숨 쉬고 있어,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하고 있다.

이 두 분은 특히 몽골불교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푸레밋 스님은 예술분야에서, 불칸 스님은 철학과 종교에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며 라마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력이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승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삼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걸음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일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할뜰게 잡거나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내리 쫓고 합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보존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신재위임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삼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사반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쫄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변에 걸쳐 고려의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던 때에도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재 (사할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원, 비유적, 보석성, 무동산종교, 미미관심, 복복합, 다정, 향악형,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모텔, 각종호텔, PC방, 담구장, 치킨, 인체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방구, 문방구, 신상배상, 전자제품점, 마약, 성, 빗발, 각종 주류소, 신상배상, 주점, 사외의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부처님 제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열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시세를 하는 중생들의 꾸밈이다. 반면 목도 안좋은 환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정묘와 사업존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배당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미고사는 터가 있다. 한전들 한자본 밑에서도 쫄

호신불구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자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길고 다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심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심리시대 전행에 나가는 중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정을 벌일때에 왜정정수와 왜정정수의 밑에 종이 적절 전정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들어오라는 뜻에서 꼭각으로 만든 탄가 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정에 나간 정수와 밑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후에

도 교통사고도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관안일이 많은 오늘날도 단행은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신물을 헌다던 평생 아름다운 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받았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툴 밑에 걸어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쫄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할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드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등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력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율해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범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은으로 사안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던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재인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탄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역언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력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려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려며 저속속에 평생 받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할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재